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분	학위과정	성명	임병기
제 목	“화전을 일구던 소년이 평생학습으로 꿈을 이룬다”		
<p>나는 고향이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관관터 갈군대기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태어났다. 5-6세 때에 기억으로는 아버지는 농사도 하셨지만 한량이셨고 어머니가 조그마한 밭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p> <p>내 나이 7세가 되어서 00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2학년이 될 무렵 홍천읍으로 육남매 중 외아들인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 이사를 했지요. 내가 5학년 될 무렵 살림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부모님은 결국 화전을 하시기로 하고 횡성군 공근면소재 시계골이라는 곳으로 떠나고 나는 시집간 셋째 누님 집에 맡겨져 6학년을 마치기로 했습니다.</p> <p>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학교행사인 소풍이나 수학여행은 물론이고 졸업앨범 살 돈이 없어 못 샀습니다. 저는 졸업식에도 가지 못하고서 부모님이 계시는 시계골이라는 곳으로 차비가 없어 걷고 걸어서 고개를 넘어 도착해보니 부모님께서도 의식주 해결이 안 되어 힘들어 하셨죠.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 나물만 먹었더니 몸이 퉁퉁 부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때 나이 14세, 나는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화전 하여 좁쌀 4가마를 팔아 넘어 다니던 고개 밑에 집을 사고 이사를 했어요. 형편은 조금 나아졌지만 보릿고개라는 철이 되면 보리를 볶아 죽을 쑤어 먹고, 덜 익은 옥수수를 칼로 밀어 죽을 쑤어 먹기도 했죠.</p> <p>그 무렵 나는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강의록을 사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결국 실패 했어요. 혼자 공부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16세 되면서 나는 나무를 해서 주막에다 팔아서 국수를 사다가 집에 조금 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아침 밥상머리에서 너를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싫어요. 내가 더 잘 할 겁니다. 하고 나무를 팔아 국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에서 제일 잘사는 집에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집에 와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서당이라는 곳이었어요. 나는 그곳에 보내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쓰기 시작을 해서 지금 기억으로는 3일은 떼를 쓴 것 같아요. 부모님도 기가 막히셨던 것이죠. 왜냐면 1년에 쌀 한 가마를 훈장님께 드려야 하는데 논도 없을뿐더러 더군다나 먹고살기도 바쁜데 기가 막힐 지경이셨겠지요. 그러나</p>			

나는 굶하지 않고 즐라맷고 내가 벌어 갓졌다고 하자 내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봐라 승낙을 받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꼴을 한 짐을 베어다 놓고서 서당을 다녔어요. 그것도 가까운 서당에 못가고 4km 떨어진 곳을 매일 걸어 다녔죠. 1년이 되면 장래 쌀을 빌려서 드리고 콩이나 팥을 팔아 쌀을 사서 갓았죠.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천자문 계몽편 동몽선습 명심보감 통감까지 배웠습니다.

나는 계속 배우고 싶었으나 형편상 마치기로 하고 집안일을 계속 도왔으나 형편은 좀처럼 좋아지질 안았어요. 그 때에 마침 화전민을 시내로 내보내는 국가정책으로 화전 밭에다 아카시아, 오리나무를 심으면서 밀가루를 품삯으로 지불하던 때였어요. 새마을도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때 기르던 소를 팔아서 다랑이 논을 사 다행히 아랫마을로 내려와 집을 짓고 그곳을 떠나지는 않게 되었어요.

24세 때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나이는 21살 두 사람 모두가 철은 없었으나 물론 아버지가 계셨지만 가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나의 어깨는 너무 무거워졌어요. 크게 목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담배를 심어보기도 하였으나 비료 값이나 인건비를 제외 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2년 담배 농사를 해본 후에 나는 추석에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를 따라서 무작정 상경하여서 한문을 배웠다는 이유로 한의원에서 한약 조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때 나이 27세 얼마 후에 대학병원에서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하여 78년6월16일 정 직원으로 발령을 받고 서울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10만원 보증금에 월세 3만원을 내기로 하고 아내를 서울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때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아내는 결혼식 때 받았던 반지와 목걸이를 팔아 서울시내에서 제일 집값이 싼 동네를 찾아 상계동에서 25만원으로 전세를 얻고 이사 했죠. 고생을 해보았기에 아내와 나는 열심히 살면서 직장생활 3년이 될 무렵 동대문구 중화동(지금은 중랑구)에 27평짜리 단독주택을 사면서 안채를 세를 놓고 사랑채에 우리가 살면서 2년 후에 세를 내보내고 우리가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래도 완전한 내 집이라고 현 곳을 수리하면서 쥐똥을 뒤집어쓰면서도 제일 좋았고 보람을 느꼈지요. 왜냐하면 내 집을 가져보거나 할까하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후 대지50평 단독주택을 구입 3층으로 신축을 하여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어요. 우리 식구가 모두 7명이 되었지요. 이렇게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나이 56세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00원장을 찾아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직장생활로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 저도 직장에다 보람된 일을 남기고 정년퇴직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외부에서 사내강사훈련을 시키는 회사 사람을 초빙해 저를 비롯한 간호사 및 행정직 파트별 20명을 뽑아 교육을 시켜 사내강사로 발령을 내주셔서 1차로 내가 어학관련 한문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양문화고급과정(비학위)에서 사서, 예절, 경전학 공부를 4년 동안

공부하고 퇴직을 하면 나는 직장에서처럼 사회에 나가서도 강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으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으로 강의를 써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나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생각 끝에 안 되겠다. 생각하고 검정고시학원을 가기로 마음먹고 00검정고시학원을 찾아갔으나 처음에는 문도 못 열어보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지금 나이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용기를 내어 찾아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나의 첫마디 말이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하였더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걱정마시고 시작하십시오. 나는 그 말씀에 용기 내어서 등록 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원장님은 한문강의를 학원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번에 마치고 대학교를 가야하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성균관 평생교육원에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입학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던 중에 교양과목 이수를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교수께서 한문 특강을 하게 해주셔서 특강을 2시간 동안 하고 집에 왔는데 다음 날 총장님이 찾아서 갔더니 우리학교에서 한문교육을 해보라는 말씀과 함께 00교수로, 석사를 마치면 00교수로 임명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은 평생교육원에서 열심히 강의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은 00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 했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한방차에 대한 강의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학위과정은 마쳤고, 석사과정도 6월15일이면 마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향교가 234개가 있는데 그 중 00향교에서 논어를 강의하고 서울 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에서는 한문 과정과 한방차 강의를 모두 끝나고서 휴식을 취하며 사회복지 석사논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하고 10년 동안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6월15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자원봉사도 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겠죠. 자녀도 출가하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다 아버지87세 어머니9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자랑 같지만 늦게라도 열심히 하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신님의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한방차를 마시며 고전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君君臣臣父父子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이렇게 살면 온 세상은 평화로울 것 같지요. 지금처럼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은 아니겠지요. 너무 구식인가요? (마침내 나의 못 배운 한을 풀었답니다)

이상 끝.